

# 왕비가 된 막내딸

글 · 장세현    그림 · 안드레아스 피셔





모야모와 아누는 시골 길을 걷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보게 되었어.  
송아지를 직접 볼 기회가 없었던 모야모와 아누는 신기해서 이리저리 살펴보았지.  
그러다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둘은 눈짓을 주고받더니 얼른 빨간 손수건을 꺼 들었어.



응. 그런데 포르투갈 사람들도  
투우를 매우 즐겨 하지.

에스파냐에서 하는  
투우 말이야?

이러니까 우리 꼭  
투우사 같은데?

자,  
어서 덤벼 봐!

혹시  
포르투갈로?

악!



# 왕비가 된 막내딸

글 · 장세현   그림 · 안드레아스 피셔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는(은)

모야모, 아누와 함께 유럽의 포르투갈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가난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막내딸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를 아주 오랜 옛날이었지.  
 포르투갈의 한 마을에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었단다.  
 어머니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성격이나 생김새가 다 제각각이었대.  
 큰딸은 먹는 것만 밝히는 욕심쟁이 똥보였고,  
 둘째 딸은 멋 부리는 것만 좋아하는 새침데기였지.  
 오직 막내딸만이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무척 고왔다는구나.





한편, 그 마을에 아담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요정이 살고 있었단다.  
요정은 홀어머니와 세 딸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고 늘 마음이 아팠어.  
‘쫂쫂……. 가엾기도 해라. 뭐,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요정은 골똘히 생각한 끝에 좋은 방법을 찾아냈지.  
그 전에 먼저 그들이 정말 도와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기로 했어.



요정님,  
저 가난한 네 식구를  
꼭 도와주세요.



요정은 먼저 큰딸을 불렀어.

바느질할 것이 많으니 좀 거들어 달라고 말이야.

큰딸은 요정의 집으로 가서 바느질하는 것을 도왔지.

하지만 일을 하는 동안 큰딸의 머릿속엔 온통 먹는 생각뿐이었어.

‘요정의 집이니까 귀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겠지?’

큰딸은 잔뜩 기대했지만

점심때가 되어도 음식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지.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겨우 밤톨만 한 빵 한 조각이 나왔지 뭐야.

화가 머리끝까지 난 큰딸은 하던 일을 팽개치고

집으로 뺨 돌아와 버렸단다.





집에서는 어머니와 두 동생이 큰딸을 반갑게 맞았어.

“애야, 오늘은 네 덕분에 점심과 저녁을 아주 배불리 먹었단다.”

“그래, 언니. 요정님께서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보내셨더라고.”

큰딸은 이 말을 듣고 더욱 화를 내며 투덜거렸어.

“흥! 그놈의 요정, 심술도 참 고약하네.

하루 종일 일한 나한테는 겨우 빵 한 조각 내놓고선…….

내일부터 일하러 가나 봐라.”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 딸이 고개를 가웃거리며 대꾸했지.

“설마 요정이 언니를 굶겼을라고. 언니가 안 간다면 내가 가지, 뭐.”

이튿날 둘째 딸이 요정의 집으로 갔단다.

요정은 둘째 딸에게도 바느질을 시키고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대신 집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보냈지.

둘째 딸은 하루 종일 끓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척했어.

왜냐고? 아름다운 옷감을 보자 몹시 탐이 났거든.

‘요정에게 잘 보이면 이 옷감을 조금 줄지도 몰라.’

하지만 둘째 딸의 꿈꿨속도 소용없었단다.

요정은 천 한 조각도 나눠 주지 않았거든.

잔뜩 토라진 새침데기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불만을 터뜨렸지.

“아주 못된 욕심꾸러기 요정이야. 나도 다신 일하러 가지 않을 테야.”

막내딸이 이 말을 듣고 두 언니에게 이야기했어.

“언니들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으니 이번에는 제가 갈게요.”



그거 그만 보고  
이제 일 좀 해.

요정의 집에 도착한 막내딸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하지만 마음씨 고운 막내딸은 배고픔을 참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바느질을 했단다.  
 자기가 일한 대가로 엄마와 두 언니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했거든.  
 그날 집으로 돌아온 막내딸은 엄마와 언니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일만 한 자신을 걱정할까 봐 거짓말까지 꾸며 냈어.  
 “요정님께서 잘 대접해 주셔서 배불리 먹으며 일했어요.  
 내일도 제가 그 집에 일하러 갈게요.”





다음 날 막내딸이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 요정은 속으로 생각했지.  
 ‘음, 정말 마음씨가 곱고 착한 아이로구나.  
 이 아이라면 내가 아낌없이 도와줘도 괜찮을 것 같군.’  
 요정은 이때부터 막내딸을 친딸처럼 아주 잘 보살펴 주었다.  
 식사 때가 되면 맛있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 주었고,  
 집 안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신기한 물건들도 구경시켜 주었어.  
 시간이 흐를수록 요정과 막내딸은 서로에게 정이 흠뻑 들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이 요정에게 말했어.

“요정님, 제가 이 집에 함께 살면서 요정님을 도와 드리는 게 어떨까요?”

“네가 원한다면 나야 좋지.”

요정도 막내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게 뭔데요?”

“밤이 되면 나쁜 유령들이 이 집을 막 돌아다닌단다.

유령들이 나한테는 감히 해코지\*를 못하지만

너같이 착하고 연약한 여자 아이한테는 못된 짓을 할지도 몰라.”

이 말에 막내딸은 잔뜩 겁을 먹었지.

“호호.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유령을 손쉽게 물리칠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고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무나.”

\*해코지 : 남을 해치려고 하는 짓.



요정은 껏속말로 막내딸에게 유령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려 줬어.

막내딸은 요정이 가르쳐 준 대로 물이 든 항아리를 준비하고  
조용히 앉아 유령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

그날 밤, 자정이 되자 한 줄기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어디선가 한 떼의 유령이 몰려와 시시덕거리며  
온 집 안을 쏘다니기 시작했단다.

막내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령이 지나갈 때마다  
항아리의 물을 뿌리며 이렇게 외쳤어.

“어둠 속으로 썩 물러가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유령들이 벌벌 떨며 모두 달아나 버리는 거야.





요정은 막내딸을 칭찬하며 말했다.

“정말 잘했구나.

새벽에 유령들이 또 한 번 지나갈 테니 똑같이 하려무나!”

요정의 말대로 새벽이 되자 다시 유령들이 나타났다.

막내딸은 이번에도 아주 침착하게 유령들을 물리쳤다.

유령들은 두 번씩이나 혼쭐이 나자

다시는 요정의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막내딸은 요정의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지.

그런데 얼마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요정이 막내딸을 데려가서는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더군.”

“그게 정말이야? 이제 보니 아주 못된 요정이로구먼.”



물론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  
 동생의 처지를 시기하던 두 언니가 퍼뜨린 거였어.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이 점점 커지자  
 요정은 막내딸을 더 이상 곁에 둘 수 없었지.  
 너무 아쉬웠지만 막내딸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단다.  
 요정은 헤어지기 싫어하는 막내딸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며 말했어.  
 “나도 너랑 함께 살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이 속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들었단다.  
 집안 살림이 어려울 테니 보탬이 될 거야.”  
 막내딸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자  
 요정이 이번에는 황금으로 된 가는 줄을 내밀었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고운 황금 줄이었지.  
 “이건 너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란다.  
 꼭꼭 숨겨 뒀다가 정말로 필요할 때 써라.”

정말  
 특별해 보이는  
 황금 줄이야.





막내딸이 집으로 돌아오자

요정이 준 작은 상자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단다.

두 언니는 동생이 어떤 작별 선물을 받았을지 은근히 기대가 컸거든.

그런데 동생이 들고 있는 상자가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엄청 실망을 했지.

“애개, 요게 뭐야? 그동안 일만 실컷 부려 먹고 겨우 요걸 줬단 말이야?”

“쳇, 정말 고마운 걸 모르는 요정이로군.”

하지만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두 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어? 이게 웬 보물이야?”

“상자 크기는 작아도 보물 하나는 참 휘황찬란하네!”

엄마와 두 언니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지.



갑자기 부자가 된 식구들은 이때부터 씹씹이가 헤퍼지기 시작했어.  
 먹을 것을 유난히 밝히는 똥보 큰딸은  
 매일같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 먹었어.  
 밋 부리기 좋아하는 새침데기 둘째 딸은  
 온갖 화려한 옷으로 몸치장을 하는 게 일이었고,  
 더구나 가난한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오던  
 엄마마저 돈을 물 쓰듯 펄펄 써 버렸지 뭐야.  
 식구들이 이렇듯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낭비를 일삼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살림은 또 어려워지고 말았단다.

\*진수성찬: 푸짐하게 잘 차린 맛있는 음식.



예전처럼 빈털터리가 되자 엄마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  
 “후유, 진작에 좀 아끼고 절약할걸…….  
 하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어.”  
 막내딸은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몹시 아팠지.  
 그래서 요정이 꼭 필요할 때 쓰라고 주었던 황금 줄을 내놓았어.  
 “엄마, 너무 걱정 마시고 이거라도 팔아서 살림에 보태세요.”  
 엄마는 잠시 줄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몹시 실망한 얼굴로 말했지.  
 “황금 줄이긴 하지만 너무 가늘어서 얼마 되지 않겠구나.  
 그래도 이걸 팔면 한동안 식구들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니  
 그걸로 만족할 수밖에…….”



엄마는 황금 줄을 팔기 위해 보석상을 찾아갔단다.  
 주인은 무게를 달기 위해 저울 한쪽에는 황금 줄을,  
 다른 쪽엔 무게를 쟈 수 있는 추를 올려놓았지.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아무리 추를 많이 올려놓아도  
 황금 줄을 올려놓은 쪽이 항상 무거워 그쪽으로 기울지 않겠어?  
 “허허, 참으로 희한한 일이군. 저울이 고장 난 것도 아닌데…….”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른 보석상으로 가 보라고 했어.  
 하지만 다른 곳에서 무게를 재 봐도 역시 마찬가지였지.

그러게, 추를 아무리  
 올려봐도 저울이  
 이렇게 기울잖아.

정말 희한한  
 일이야.



이 신기한 황금 줄에 대한 소문은 곧바로 나라 안에 퍼져 나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

“여봐라, 내가 그 황금 줄을 살 테니 가져오도록 하여라!”

엄마는 황금 줄을 가지고 임금님이 사는 궁궐로 갔지.

임금님은 줄의 무게를 재기 위해 궁궐에 있는 보석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했어.

어느덧 루비며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진귀한 보석들이 수북이 쌓였지.

신하들은 그 보석들을 저울 한쪽에 모두 올려놓고

반대쪽에는 황금 줄을 올려놓았단다.

그랬더니 역시 소문대로, 저울은 황금 줄 쪽으로 기울었지.

“과연 소문대로구나. 이렇게 가는 줄이 어찌 이렇게 무겁단 말인가!”

임금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





그때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한 신하가 임금님에게 말했어.  
“보석을 모두 내려놓고 임금님께서 그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시지요.”  
임금님도 호기심에 신하의 말대로 저울 위에 올라섰지.  
그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아무리 많은 보석을 올려놓아도 꿈쩍하지 않았던 저울이  
임금님이 올라서자 수평을 이루었거든.  
너무도 괴상한 일이라 임금님은 황금 줄을 얻게 된 사연을 물었지.  
엄마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어.  
“허허, 그런 사연이 있었던 말이나. 그렇다면 그 막내딸을 데려오너라.”

우아, 드디어  
수평을 이뤘다.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막내딸이 부리나케 궁궐로 달려왔어.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참한 막내딸을 보고 임금님은 마음이 끌렸단다.  
 그러다 혹시 하는 생각에 막내딸에게 저울에 한번 올라가 보라고 했지.  
 막내딸이 무척 당황하며 저울 위에 올라서자, 놀랍게도 저울은 수평을 이루었단다.  
 임금님이 올라갔을 때처럼 말이야.  
 이를 본 지혜로운 신하가 무릎을 탁 치며 임금님에게 말했어.  
 “웁아, 이 황금 줄은 임금님과 저 막내딸을 이어 주는  
 신비한 물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임금님과 황금 줄의 무게가 같고, 황금 줄과 막내딸의 무게 또한 같으니  
 이런 천생연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임금님도 그 말을 옳게 여겼어.  
 게다가 자기 가족을 끔찍이 위하는 사람이라면 왕비 자격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이리하여 마음씨 착한 막내딸은 임금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천생연분: 하늘이 정해 준 인연.



## 글을 새로 쓴 장세현 선생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어요. 시 〈거리에서 부르는 사랑 노래〉로 등단했고, 계간 〈시인과 사회〉기획·편집 위원, 월간 〈사회평론 길〉편집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현재 작가로 다양한 글을 쓰고 있어요. 작품으로는 〈벽화 속에 살아 있는 고구려 이야기〉, 〈우리 그림 진품명품〉, 〈어린이 백범 일지〉, 〈세상 모든 화가들의 그림 이야기〉 등이 있어요.

## 그림을 그린 안드레아스 피셔(Andreas Fischer) 선생님은

독일에서 살고 있어요. 독일 일러스트의 본고장 아헨에서 그래픽스 디자인 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 에스파냐 등 해외 출판사와도 작업을 했어요. 그린 책으로는 〈톨스토이의 일생〉, 〈피델리오〉, 〈걸리버 여행기〉 등이 있어요. 이 책의 그림은 불투명 수채 물감인 구아슈를 사용하여 선명한 색감을 표현했으며, 아기자기하고 섬세하게 묘사했어요.



\*구아슈는 물과 고무를 섞어 만든 불투명한 수채 물감입니다. 물에 타서 사용하기 때문에 투명화 효과도 낼 수 있으며, 두텁게 발라 질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색조는 선명하지만 광택이 없으며, 차분하고 부드러운 효과를 냅니다.

## 모야모와 아누를 그린 김혜민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고, 지금은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고 있어요. 그린 책으로는 〈종이 접기〉, 〈빨날개가 돌아왔어요〉, 〈지붕 위의 의자〉, 〈안개〉 등 다수가 있어요. 모야모와 아누는 수채화 기법과 다양한 무늬의 종이, 잡지, 형겅 등을 이용한 콜라주 기법을 써서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표현하였어요.

## 왕비가 된 막내딸

발행처 | (주)교원 :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258 대표 전화 | 1577-6688, 080-023-9091 등록 번호 | 제300-1971-1호 발행인 | 이정자 편집 책임 | 박두이  
글 | 장세현 그림 | 안드레아스 피셔 캐릭터 | 김혜민 기획·편집 | 윤미영, 김보인, 지미라 편집 디자인 | 여인희, 김유정, 김소정 캐릭터 개발 | 조수진, 최민지 제작 |  
전승호, 김권식 사진 제공 | (주)토픽 포토 에이전시, Gamma 제판 | 상현 프로세스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36-1 인쇄 | 평화당 인쇄(주)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0  
제본 | 태성바인텍(주)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29 1판 1쇄 발행일 | 2006년 10월 2일 1판 2쇄 발행일 | 2006년 11월 1일

Copyright © 2006 by Kyowon Co., Ltd.

〈모야모와 아누의 세계 옛이야기〉는 (주)교원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사의 동의나 허락이 없이는 내용이나 그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89-21-43171-3 ISBN 89-21-00090-9(세트)

인터넷 <http://www.kyowon.co.kr>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Printed in Korea

△ 주의 |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본 교재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고온 다습한 장소나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는 보관을 피해 주십시오.



〈모야모와 아누의 세계 옛이야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데

알찬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값 9,000원